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, 농업용수 8288ha 공급 마무리…운영대의원회의서 내년 신규 17지구 제출 보고

김준혁(=호남) 기자 | 승인 2026.11.25 13:09

> 양·배수장 등 보수·정비 204건, 지난해 극한호우 피해 20지구는 영농기 전 복구



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는 올해 나주호를 비롯한 저수지와 양수장 등으로 관내 농경지 8288ha에 영농급수를 마쳤다고 25일 밝혔다. [사진제공=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]

[폴리뉴스 김준혁(=호남)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는 올해 나주호를 비롯한 저수지와 양수장 등으로 관내 농경지 8288ha에 영농급수를 마쳤다고 25일 밝혔다.

지사는 24일 2026년 하반기 운영대의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성과와 내년도 영농급수 준비 계획을 공유했다.

지사는 나주시 공기관대행사업비를 포함해 16억 1000만 원을 들여 양·배수장 정비와 용·배수로 보수, 수초·퇴적물 제거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물 보수·정비 204건을 진행했다.

지난해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양·배수장과 저수지 등 20지구는 영농기 전에 재해복구와 성능개선을 끝냈다.

내년 사업으로는 배수개선사업 3지구와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4지구 등 17지구를 신규 대상지로 제출했다.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. 내년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저수율 관리와 시설물 점검·정비도 이어간다.

회의는 한 해 동안의 용수 공급과 수리시설 유지관리 성과를 돌아보고, 지역 농업인의 의견을 들어 영농현장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.

류화열 나주지사장은 "올해 영농급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운영대의원과 지역 농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"며 "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세심하게 살피고, 시설 정비와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내년에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김준혁(=호남) 기자

저작권자 ©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